

【우리시의 향기】

## 시와 고유명사

유종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나라 이름 땅 이름

생소한 것은 곧잘 우리의 주의를 끈다. 생소한 것은 그 자체가 평범한 것에 대한 반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생소한 말 그 자체가 시적인 것의 에너지가 되어 준다. 한때 모더니스트들이 귀화식물이나 이국산 화초의 이름을 애용한 것은 생소한 것의 매력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외래어가 너무 빈번히 쓰이게 되면 곧 익숙해지고 생소한 사투리가 더욱 매력있게 된다. 김기림은 곧잘 외래어의 생소함에서, 백석은 서도 방언의 생소함에서 시적 자원(資源)을 구하고는 하였다. 시어 하나가 시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음 시편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나의 고향은  
저 산 너머 또 저 구름 밖  
아라사의 소문이 자주 들리는 곳

김기림의 “향수”의 전반부이다. 이 구절의 매력은 아라사라는 말에서 온다. 러시아라 하더라도 매력은 반감할 것이다. 한말에 잠시 쓰이다 폐기

된 이 말은 입을 크게 벌려야 나오는 소리를 끼고 있어 막막하게 광대한 나라의 이름으로 아주 적격이라는 감을 준다.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아주 능직이요 효과적이다. 로시아(露西亞)와 얼마나 다른가. 가령 또 시베리아와 서백리아(西伯利亞)는 얼마나 다른가.

시바우라 같은 데서 혹은 메구로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잡자며  
꽤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만 여겨집니다  
서로 모르게  
어둠을 타 구름처럼 흩어졌다가  
똑같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용악, “다시 항구에 와서”에서

시바우라나 메구로나 모두 도쿄의 한 지구이며 시바우라는 대부분이 바다를 메운 매립지이다. 시인이 노동하고 함숙했던 곳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적인 시이지만 지구(地區)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시적 에너지를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니 일본 냄새도 나지 않는다. 도쿄에는 메구로(目黒)역도 있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김광균, “노신(魯迅)”에서

중국 상해에 정말로 “호마로”가 있는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호말만한 처녀”라는 말의 그 호마로가 꼭 있을 것 같다. 시인 김광균은 육이오 직전 시 쓰기를 그만두고 사업가로 변신한다. 그의 사업가 변신을 단편소설 속에서 육한 작가도 있었다. 그 무렵의 고민과 내적 갈등을 다룬 이 작품에서 고유 명사는 아주 효과적이다. 가보지 않은 상해의 뒷골목이 마치 우리 쪽 옛 중국인 거리를 연상시키며 정겹게 느껴진다.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상해는 우리에게 각별한 물림을 갖는다. 이 시편에서 노신은 생활과 문학을 일치시키려 노력한 작가로 그려진 것이라 생각한다.

헐어진 풍차위엔

흘러가는 낙엽이 날카로운 여음(餘音)을 굴리고

지롤의 조락한 역로(驛路)에 서서

나는

유리빛 황혼을 향하여 모자를 벗고.

— 김광균, “벽화”에서

위에 나오는 “지롤”은 “티롤”이라 생각된다. 티롤(Tirol)은 오스트리아 서쪽 끝과 이탈리아 북부에 걸친 알프스 산중의 지방이다. 관광과 동계 스포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광균이 실제로 티롤에 가본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동경은 모더니즘의 기본 충동의 하나지만 상상속에서 이런 구절을 적었을 것이다. 벽에 걸어놓은 사진이나 그림 엽서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따온 것인지도 모른다. 티롤이 지롤로 되어있는 것은 일본말 표기를 따른데서 오는 잘못된 것이다. 꼼꼼히 읽는 독자들에게 처음 곤혹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지명임을 알고 나면 모더니즘 시편의 매혹과 한계를 동시에 실감할 것이다.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는 어디 있는가,

— 김춘수, “부르는 소리 5” 전문

이 소품은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이 주는 환기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작품이다.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의 발상지이자 코스모스의 원산지이다.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중진국이며 석유 개발을 계기로 한때 경제 기적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우리보다 한발 먼저 찾아온 외환 위기로 곤욕을 치렀던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별한 울림을 갖게 되었고 기이한 친근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사바다는 농민 지도자 출신의 혁명가였으나 군부의 술수에 넘어가 좌절의 생애를 끝낸다. 말론 브란도가 주연을 하였던 “혁명야 사바다”란 흑백 영화를 기억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5. 16 직전에 이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 멕시코란 나라 이름의 반복적인 사용과 사바다, 사바다의 누이란 사람 이름을 반복해서 고유명사의 음악화로 시를 구성하고 있다. 더 축약해서 말하면 이 작품은 고유명사의 음악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자유연상에서 시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 시인이 얘기하는 무의미의 시인데 고유명사의 음악이요 이미지의 음악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으면 더 실감이 간다.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리고 보면 나라 이름 땅 이름 못지 않게 시에서는 사람 이름 특히 시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여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

## 시인 이름

빈 포켓에 손 찌르고 폴 베를레느 찾는 날  
 윈 몸은 흐렁흐렁 눈물도 조금 나누나  
 오! 비가 이리 쭈쭈쭈 나리는 날은  
 설은 소리 한 천마디 썼으면 싫어라

— 김영랑, “빈 포켓에 손 찌르고” 전문

1935년에 간행된 “영랑시집”에는 도합 5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자만 표시되어 있을 뿐 개개 시편의 표제는 달려 있지 않다. 서양 시에서도 과거엔 그러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첫줄 첫 대목을 독자들이 편의상 그 시의 제목으로 삼아서 구별하였다. 위의 4행시도 시집에서는 단순히 30이란 숫자가 붙어 있을 뿐이지만 관례에 따라서 첫줄의 첫 대목을 빌려 “빈 포켓에 손 찌르고”라고 제목을 부쳐 본 것이다. 영랑 이전에도 작품속에 시인 이름이 나온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영랑이 베를레느를 거론한 것이 아마도 최초의 사례중의 하나일 공산이 크다. 어쨌거나 그 이후 시인의 이름이 나오는 시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거론된 시인은 대개 거론한 시인과 어떤 친연성을 가지고 있어 재미있다. 베를레느는 유명한 프랑스의 서정시인이다. 미남 시인 랭보와의 사달로 투옥 경험도 가지고 있다. 영랑의 4행시에 “비가 이리 쭈쭈쭈 나리는 날”이란 대목이 나오지만 베를레느에게는 “도시에 내리는 비”란 유명한 시편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시 역시집인 김안서의 “오녀의 무도”에도 그 시가 수록되어 있다. 지금 읽으면 빈약하기 그지없는 번역시집이지만 당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에 내리는 비인듯  
 내 가슴엔 눈물의 비가 외라.  
 어찌하면 이러한 설음이  
 내 가슴속에 숨어 있으랴.

베를레느는 또 보들레르와 함께 서정주 초기 시편에도 등장한다. 젊은 시절 미당이 영향받았던 시인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베를레느와 이태백이 병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이 작품에는 김동리에게란 부제가 달려 있다.

목아지가 가느다란 이태백이 처럼  
우리는 어찌서 양반이어야 했드나

포올 베를레느의 달밤이라도  
북동아와 가치 나는 새끼를 낀다

—서정주, “엽서”에서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의 동인이었고 이례적으로 “영랑과 그의 시”란 시인론을 남겨놓고 있는 정지용은 자기의 애송시로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들고 있다. 김영랑은 정지용에게 “내 시의 독자가 다섯이나 될까?”라고 말했다 한다. 정지용이 그의 첫째 독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지용이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을 때 김영랑은 거의 무명의 존재였다. 영랑이 베를레느를 거론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지용은 하이네를 거론하고 있다.

하인리히 하이네적부터  
동그란 오오 나의 태양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굽치를  
조롱 조롱 한나잘 따라 왔다.

산간에 폭포수는 암만해도 무서워서  
기염 기염 기며 나른다.

—정지용, “폭포”에서

한나절이 표준말이지만 “아” 소리의 연속 효과를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한나잘”이라 했을 것이다. 유태계 독일인이었던 하이네는 프랑스 혁명의 아들이라 자처했고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성공에 감격하여 그 이듬해 독일을 떠나 프랑스에서 영주하였다. 통렬한 풍자정신으로 독일 사회를 비판했던 그는 만년에 기독교도로 진정한 개종을 했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도 하였다. 2차대전 중 나치 군대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히틀러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그의 묘지 파괴를 명령하였다. 휴머니즘과 정치적 야만주의의 대립적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삽화이다. 정지용이 등산 시편에서 태양을 굳이 하이네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하이네에게서 어떤 향일성향(向日性向)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 백석과 윤동주와 그들의 수작 시편 “흰 바람벽이 있어”와 “별 헤는 밤”에서 릴케와 프랑시스 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릴케는 특히 해방 후의 시편에서 자주 거론된다.

가을에 나의 시는  
두이노 고성(古城)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비통으로  
더욱 나를 압도하라.

— 김춘수, “가을에”에서

지금은  
저마다 가슴에 인(印) 찍어야 할 때,  
아! 1926년, 노을빛으로 저물어 가는  
알프스의 산령(山嶺)에서 외로이 쓰러져 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旗)여  
— 김춘수, “기(旗)”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당신의 눈을 보고 있다. 천사들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손으로  
나무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죽어간 소년의 등뒤에서

도 하나의 작은 심장이 살아나는 것을,

— 김춘수, “릴케의 장(章)”에서

4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순수와 무구함의 기호 구실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석, 윤동주, 김춘수 이외에 조병화도 릴케를 시행으로 적고 있다. 이렇게 외국 저명시인들이 시속에 등장하는 한편 국내 시인을 처음으로 시속에 도입한 이는 미당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당 이후 시인 이름을 시에 적는 것은 시적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엔 진부해 보이기까지 한다. 시인들의 사교(社交) 시 편이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의 가진 것에다 살을 비비면 병이 낫는다고,

아직도 귀뚜라기가 새파란 새댁이 논개의 강물에다 두손을 적시고 있는 것을  
시인 설창수(薛昌洙)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어서 보았다.

— 서정주, “진주 가서”에서

청마(靑馬)는 가고

지훈(芝薰)도 가고

그리고 수영(洙暎)의 영결식

— 박목월, “일상사(日常事)”에서